

 안 그래픽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2930 Old Norcross Rd #B-500 Duluth, GA 30096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uwanee 스와니 678-482-9434 (주말 예약가능) 교정/소아 치과	 DUO Tucker 770-939-1280 전문의 김범수 니콜라오 김보근 알폰소	 Brighter Smiles 광상범 이수산나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30024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MILE 1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리버밴드 오토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뜨 맞은편)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Fairway Home Loan *주택용자 *상업용자 최윤석 용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본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순교자 주보



에블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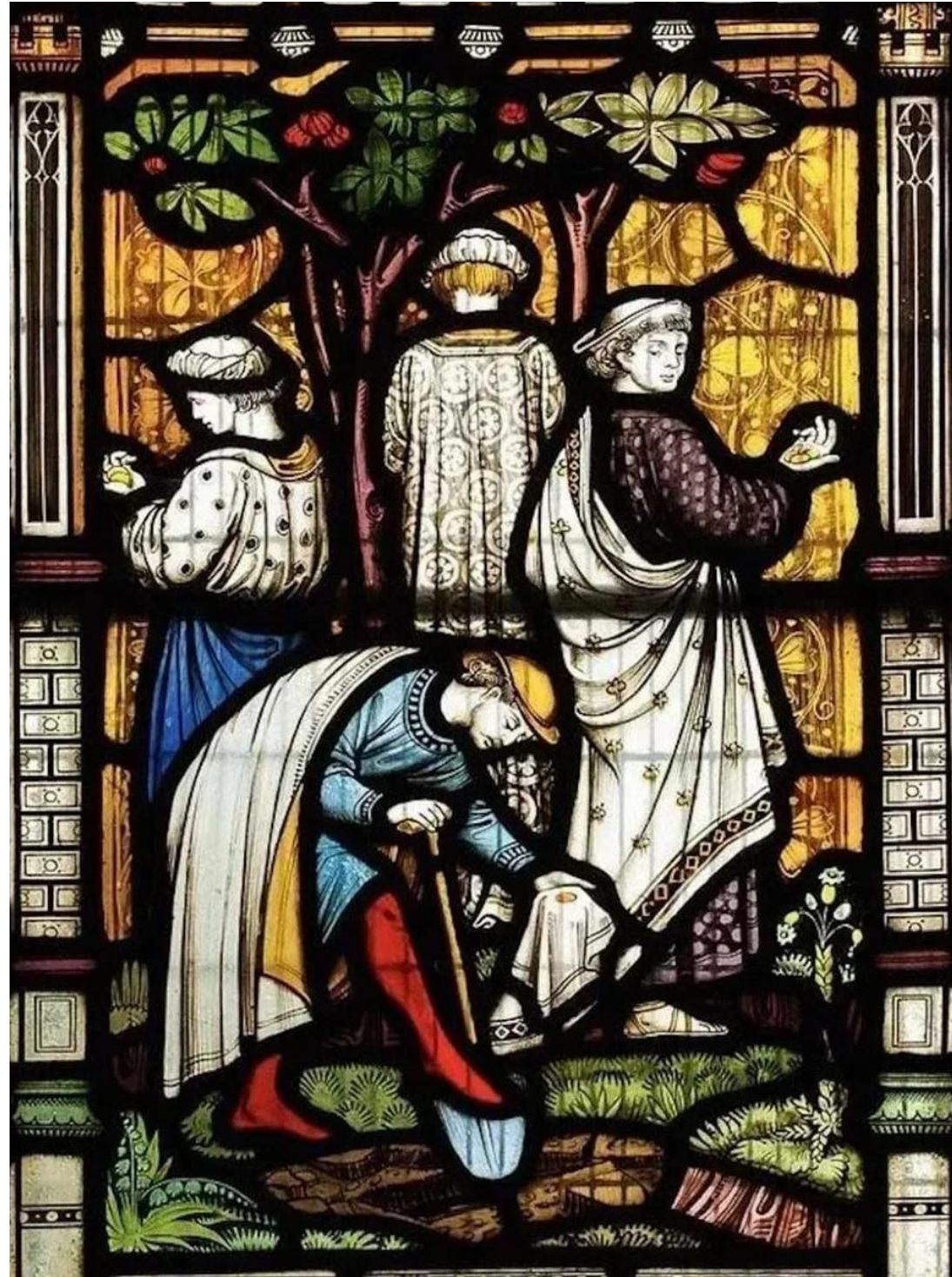
2023년 11월 19일

NO.2226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c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The parable of the Talents> Stained glass executed by Clayton & Bell, London, St Edith's Church.

회답송



행복-하-여 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연중 제33주일

성 가

입당: 48
 봉헌: 212/216
 성체: 156/158
 파견: 41

제1독서 잠언 31, 10-13, 19-20, 30-31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5, 1-6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복음 환호성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마태오 25, 14-30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오 23,14-30)

저울질 <마태오 23,14-30>

배영길 베드로 신부

가끔은 내가 누군가를.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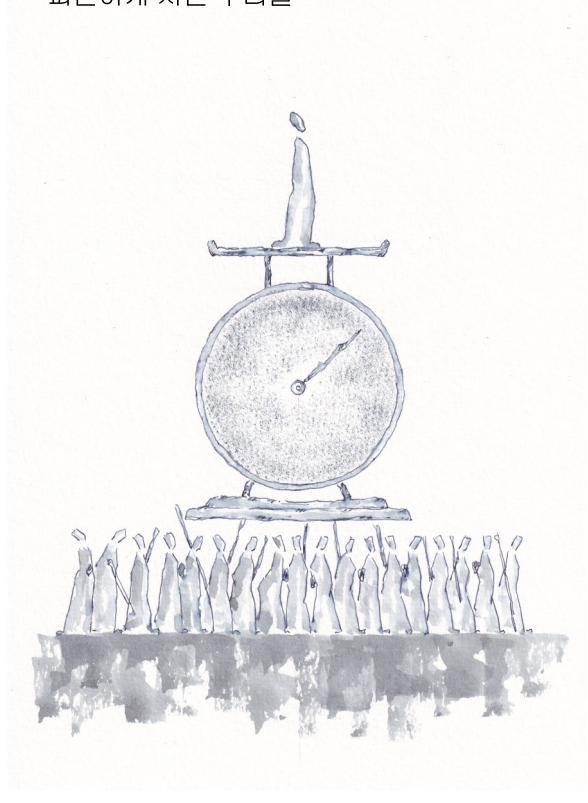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저울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가지.

피곤하게 사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тала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талан트를 또 다른 사람은 두 талан트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талан트는 온전히 내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또는 능력대로 자신의 талан트를 드러냅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талан트 만큼 쓰여지길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 말씀을보면, 맡기신 талан트를 그냥 돌려 드리는게 아니라, 그 이상을 벌어서 돌려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 묵상을 하며, 옛말에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талан트에 예수님의 사랑까지 더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뿌린 것 이상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은 талан트는 '맡겨진 것'이라는 것과, 그 талан트는 예수님 사랑안에서의 '작은 일에 성실한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талан트의 양과 내용은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없이 맡겨진 талан트를 성실히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에게 맡겨진 талан트를 창조주의 창조된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 작업인 것입니다.

| 성찰 |

우리가 받은 талан트로 작은 일에 성실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웃이나 공동체와 나눌 수 있을까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특집

성경 속 가난의 의미는?

◆ 구약의 가난

구약에서는 가난이 궁핍한 자, 가련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등으로 드러난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난'은 히브리어 '에브론'이라는 단어를 통한 '빌어먹는 신세, 거지 신세'를 가리킨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집이 없는 이들(이사 14,30)이나 굶주림에 시달리고(이사 32,6-7)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들(아모 2,6; 8,6) 등을 말한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런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의 관심 대상이고 구원 대상이라고 언급한다.(시편 35,10 등)

'가난한 농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합당한 법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이사 10,2) 빚을 못 갚는 경우는 노예가 된다(아모 8,6). 하느님은 이런 힘없는 농민의 보호자로 그려진다.(이사 25,4 등)

게으름에서 오는 가난도 표현된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막소르'를 써서 게으러서 가난하게 되거나 인색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 경우를 묘사했다. 잠언 24장 33-34절,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가 대표적이다.

바람직한 가난의 개념도 있다. 코헬렛에서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조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다'(4,13)고 했고, 잠언에서는 '그릇된 입술을 가진 우둔한 자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걷는 이가 낫다'(19,1)고 한다.

정치적 및 경제적 약자의 의미도 나온다. '젊은이가 설사 임금의 통치 때에 빈곤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와 임금이 된다'(코헬 4,14)는 구절은 권력 없는 가문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까지 오른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또 '국가 안에서 가난한 이에 대한 억압과 공정과 정의가 유린됨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일에 놀라지 마라'(코헬 5,7)등에서는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이들의 가난을 밝힌다.

아울러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서 비롯된 가난의 개념은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이사 10,2) 등에서

는 법적으로 부당하게 취급받는 빈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들,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다.(시편 12,5 등) 한편 이 가난은 불의보다 나은 것으로 묘사된다.(잠언 16,19)

경건한 가난도 있다. 자주 회자되는 히브리어 '아나빔'은 예언서와 시편, 지혜 문학에서 '가난한 자', '경건한 자', '겸손한 자' 의미로 사용된다.(시편 25,9; 34,2)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아나빔)을 잊지 않으시며(시편 10,12), 이들 역시 하느님께 간구한다.(시편 9,18)

◆ 신약의 가난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린다. 복음서에서는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마태 5,3; 루카 6,20)과 예수 자신의 생활이



조앙 제페리노 다 코스타의 '과부의 헌금'(1876)

나 제자들에게 요구한 생활 조건(마태 8,20; 10,9-10; 루카 9,58 등)이다. 사도들도 예수가 가르쳤던 대로 가난하게 생활했으며 부자들에게 경고하며 가진 바를 나누고(마태 25,35-46) 자선을 베풀 것을 역설했다. 신약에서 드러나는 가난한 이의 공통적인 특징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이, 또 집이 없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갚아 주시고(루카 14,13-14),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마태 25,34-36). 또 상을 받고(마태 10,42)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다.(마태 19,21; 루카 12,33)

가난한 자를 억누른 대가는 심판을 받으며(마태 25,41-43) 비참한 일들을 당한다.(야고 5,1)

이런 가난의 모습은 윤리신학적 측면으로 볼 때 개념이 좀 달라진다. 사회적 물질적 결핍으로서의 가난과 수덕상의 가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이고 물질적 결핍의 가난으로서, 인간들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할 인간 조건이다. 후자는 복음삼덕의 하나로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생활을 말한다. 스스로 취한 단순 소박한 생활 모습이다. 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자의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표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누구든 가난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할 의무를 지닌다. 예수가 가르친 참행복의 첫째 조건이 '가난'이었다.(마태 5,3; 루카 6,20)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출처: 가톨릭 출판사



망치회 김밥과 컵라면 판매

성모회 판매

11월 11일 (토) 청년 견진 교리반



주일학교 초등, 중등, 고등부 수업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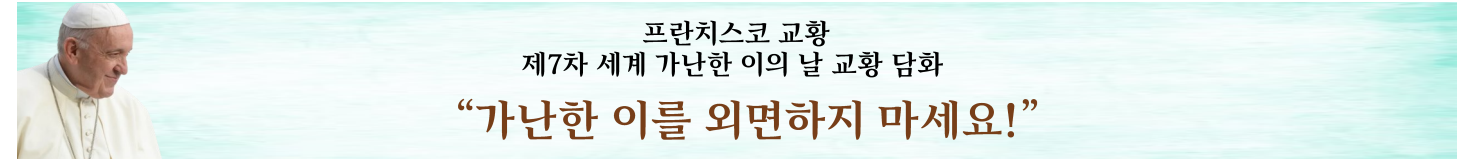
11월 14일 (화) 오후 12시 미사 이후에 故 차로사 자매님의 1주년 추모 연도가 있었습니다. 연도에 참석해주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사단 교육



학부모 영성강의



프란치스코 교황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 담화
 “가난한 이를 외면하지 마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11월 19일) 교황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교황은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2023년 11월 19일) 교황 담화에서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른다”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빈곤 퇴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황 담화는 토빗기에 대한 묵상 해설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난의 규모

교황은 담화 서두에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르며 범람할 정도로 차오르고 있다”며 “우리의 도움과 지원, 연대를 간청하는 형제자매들의 요구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커지는 반면, 빈곤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가난”의 부상을 강조했다. 예컨대 “전쟁 상황에 휘말린 이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 드라마틱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가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투기 행위” 등이다.

우리의 책임

교황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비아에게 전해진 토빗의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초대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가난의 큰 강이 우리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2023년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 담화 (AFP or licensors)

“한마디로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

는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선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는 쉽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 프로세스

교황은 올해가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획기적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반포 60주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보존권을 비롯해 의식주와 의료, 휴식과 필수 사회서비스 등 삶의 적절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정치 프로세스의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교황의 답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빈곤층도 “변화와 책임”의 과정에 참여하고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김태식〉
<http://www.vaticannews.va/ko/html>

